



(2026년 9월 3일 목요일 19면)

송파구 육영학교 증축 조속 추진해야

지정수 의원, 발달장애 학생 자립 기반 마련

송파구의회 지정수 의원이 송파구 유일의 특수학교인 한국육영학교의 조속한 증축과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돌봄·자립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지정수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3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육영학교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돌봄·자립 기반 확충'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장지동과 위례동의 여러 현안 중에서도 한국육영학교의 교실 증축과 발달장애 학생들의 교육 및 자립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 의원은 "한국육영학교는 아이들에게는 배움터이자 부모에게는 희망이며, 장애가 있어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



지정수 의원

갈 수 있다는 공동체의 소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한국육영학교 전공과 교실 증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지정수 의원은 "교육에서 돌봄으로, 돌봄에서 직업으로, 직업에서 자립으로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가장 약한 사람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발달장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단단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송파구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홍준성 기자